



9월 9일은 닭고기 먹는 날!

제11회 구구데이 페스티벌 '성료'

'2013 제11회 구구데이 페스티벌' 이 지난 9월 9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다.

'구구데이 페스티벌' 은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 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해 매년 9월 9일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날' 로 하자는 의미로 2003년 제정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동주최단체인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이홍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과 정병학 한국계육협회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등 축산 관련단체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구구데이 행사장 전경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클라라양이 위촉장을 수여 받은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구데이 11주년 기념 초대형 계란 조형물 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7色 7味 닭고기 발효액 맛닭 요리 ▲초대형 닭 모형 야외 전시 ▲구구데이 홍보관 등으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기 방송인 클라라양이 구구데이 홍보 대사로 위촉돼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닭과 계란을 이용한 미술공연, 구구데이송 발표 등 행사장을 방문한 소비자들

이 즐거움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남성우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닭고기와 계란을 사랑해준 덕분에 닭고기산업이 3조60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며 “닭고기와 계란은 ‘1高(고단백질) 3低(저칼로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인 신이 내린 완벽한 식품인 만큼 많은 사랑과 소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



구구데이 페스티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계란 구름 볶음밥 만들기를 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병아리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닭고기·계란 요리 전시관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내빈들이 닭고기 가공품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